

		<h1>보도자료</h1>		
		배포일시	2019. 6. 13.(목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	담당 자	·팀장 오송천, 사무관 박효철 ·☎ (044) 201-4770, 4756	
보도일시		2019년 6월 14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14.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국토부, 택시산업-플랫폼 간 상생발전 방안 모색

14일 교통 플랫폼 간담회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이행의지 재확인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택시산업과 모빌리티 플랫폼 간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통 관련 플랫폼 업체가 다수 포함된 코리아 스타트업포럼과 6월 14일 금요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- 이는 플랫폼 기술과 택시의 결합,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,
  - 운송 플랫폼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, 택시와의 상생틀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.
- 이 자리에서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“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가 국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기로 합의한 만큼 합의사항의 이행이 중요하다”면서,
  - “정부는 택시와 공유경제의 상생과 갈등해소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앞으로 플랫폼 업계에서 규제개선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고,
  - 이에 대해 국토부와 코리아 스타트업포럼은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논의에 다양한 스타트업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.

- 국토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두 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한편, 국민들이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택시산업팀 박효철 사무관(☎044-201-475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